

『밀양을 살다 : 밀양이 전하는
열다섯 편의 아리랑』

밀양구슬프로젝트 지음, 오월의봄, 2014

정진임*

이야기의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당시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경남과 충북을 거쳐 수도권으로 보내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계획되었다. 하지만 몇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폐지되는가 싶었다. 해외에서는 1000킬로미터 이상의 장거리 송전에서만 사용하는 초고용량 765kV 송전선을 겨우 영남권 전력 수급을 위해 90킬로미터 단거리로, 그것도 밀양처럼 논밭과 마을을 관통해서 건설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고리 핵발전소의 증설과 노후 핵발전소의 설계수명 종료 이후 연장가동을 위해서는 송전선로가 필요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은 765kV 송전선을 걸기 위해 프로젝트를 강행했다. 이 사업은 2005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처음 알려졌고, 그 때부터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 싸움은 계속되었다.

지난 10년간 한국전력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겁박했다. 주민들 중 일부는 보상에 응했고, 일부는 송전탑 반대 싸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움을 계속해 나갔다. 보상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은 지난 10년 중 3년은 산 위에서 송전탑 건설을 몸으로 막았다. 송전탑 반대 활동의 중심에서 있는 ‘할매’들은 산 위 움막에서 먹고 자고 하며 공사를 막았다. 싸움의 과정에서 평밭마을, 여수마을, 위양마을, 도곡마을, 보라마울, 골안마을, 동화전마을, 용희마을. 이들 마을공동체는 파괴되었다. 2명의 주민은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어진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 싸움은 2014년 6월 11일. 한전과 경찰의 행정대집행으로 일단락 되었다.

『밀양을 살다』는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17명에 대한 15편의 구술기록이다.

이 책은 2013년 12월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 밀양과 맺은 삶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 작업을 위해 기록노동자, 작가, 인권활동가, 여성학자, 기자 등이 전국에서 모였다. 구술기록을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를 아카이브로 남기자는 취지로 영상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밀양, 반가운 손님』이라는 옴니버스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3개월 동안 〈밀양구술프로젝트팀〉은 직접 밀양을 찾아가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책은 ‘왜 송전탑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송전탑으로 인해 마을이 어떤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으며, 삶의 터전이 어떻게 짓밟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 속에서 더욱 돈독해지는 이웃 간의 정, 새롭게 맺어지는 인연들, 더욱 풍요로워진 세계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픈 의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 외에도 할매 한 분 한 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의 결들이 어떻게 그녀를 송전탑 싸움의 한복판에 서게 했는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여기에 이 책의 의미가 있다. 단지 사건을 외부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기억과 이야기들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 안에는 시골에서 싸우고 있는 할매들만이 아닌, 역사를 가진 하나의 삶의 주체들로 할매들이 서 있다. 글도 알지 못해 여태 기록되지 못했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올해 연세가 여든일곱이 되신 김말해 할매는 삶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들과 직접 닿아있다. 일제의 공출로 가난하던 시절, 위안부 징집을 피해 17살에 도곡마을로 시집 온 할매는 5년도 채 안되어 남편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끌려간 뒤 행방이 묘연하다. 아들을 찾아다니던 시어머니는 피를 토하며 숨을 거뒀고, 젊었던 그녀는 삶이 버거워 두 아들과 저수지에서 자살하려했지만, 두 아들 덕분에 다시 삶을 붙잡았다. 베트남으로 파병간 큰아들은 허리를 다쳤고, 어릴 때부터 공장을 전전하며 고생만 하던 작은아들과 며느리는 할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할매는 80줄이 다 되어 “대동아전쟁보다도, 6·25전쟁보다도 더한” 송전탑 전쟁을 만났다.

말해할매는 인터뷰를 하며 ‘글을 몰라 본인이 지내온 그 세월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게 서럽다’ 하셨다. 서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듯 이 책은 그렇게 밀양 송전탑 싸움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밀양을 살고 있는 김말해의 기록이기도 하다.

글을 아는 것 같으나 하루하루 산 거를 일기를 써 모았으면 책을 모아도 몇권을 모은다 안카더나. 일기를 써 모았으면... 그 거나 하나 있으면 누가 봐도 안 알겠나..... 우예살았는고 생각하면 어지럽다. 아무도 내 삶을 몰라준다 싶어.(도곡마을 김말해편 「이걸 우째 이고 왔는교?」 / 기록 배경내)

책에 밀양에 평생 살아온 할매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젊은 사람들도, 훌러훌러 밀양까지 온 이들의 이야기도 있다.

마흔두 살의 박은숙은 남편과 네 명의 자녀와 함께 동화전마을에 살고 있다.

도시에 살다가 IMF 때 귀농한 그녀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말한다. “포기할 수 없지예, 우리가 끝은 아닐 테니까” 그녀는 밀양송전탑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처음에 (싸움) 시작할 때는 그냥 뭐 막연했어요. 우리 집 앞에 저 송전탑이 들어온다.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에 했는데 차츰차츰 알게 될수록, 뭐를 더 알게 되었나면 송전탑하고 원자력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통속이더라고예. 원자력 때문에 이 송전탑이 들어오더라고예. 그러면서 전력대란 때문에 송전탑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네들이 숨기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된 거지예. 아,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다른 거 다 떠나서 내 마음이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에예”(동화전마을 김은숙 편 「포기할 수 없지예, 우리가 끝은 아닐 테니까」 / 기록 류현영)

밀양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송전탑 반대싸움을 하는 할매들의 이야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책의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책을 통해 할매들은 단호하게 말한다. “돈도 필요 없다. 이 땅과 이 고향을 지키고 지금 이대로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송전탑 공사가 뒤흔들고 있는 것은 할매들의 집과 논밭이 아니라 할매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밀양 싸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쭈글쭈글한 극노인들이 경찰 방패에 가로막혀 애처롭게 울부짖거나, 포털레인 아래서 몸에 쇠사슬을

뭉은 채 농성하는” 파편적인 이미지로 밀양을 기억하고, 감정을 보태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면 그 잔상에 밀려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되곤 한다. 그걸 깨우쳐주려는 듯 이 책의 15편의 이야기에는 이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또한 세상을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에 대해서 공통의 목소리로 이야기 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양심껏 살아야 그기 사람 가치가 있지. 돈이 지금 인자 내 벌여놓은것만 해도 다 못쓸건데, 절대 돈 거는 추접은 돈이고 필요 없는 돈입니다. 돈 모할건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위양마을 권영길, 박순연 부부 편 「정부에서는 전체 거짓말을 하고 있어」 / 기록 육성철)

“송전탑 싸움을 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건데, 싸움을 하다보니 국가가, 한전이, 권력가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정의가 아니고 불의를 내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참 일찍이 몰랐다.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법치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잘 움직이는 줄 알았지만, 이 송전탑을 들여다보고 나서는 불의의 세력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골안마을 안영수, 천춘정 부부 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향은 지킬래예」 / 기록 변정윤)

“그래도 그때 쌍용이니 전 사업장이 다 힘들어했다 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있으면 안되겠다, 일어서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도 주고 우리도 받고 하자. 그래서 버스 하나에다 떠났습니다. 전국 갈등현장에 가서 우리 다 힘내자고. 한진중공업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서울에 평택, 유성기업도 갔고 용산참사 추모행사를 하는 대한문 앞에도 갔던 것 같고 곳곳을 다녔어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예. 서로서로 손잡고 하면 되겠다. 너무나 많

은 곳에서 힘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다 손잡고 서로 기운 내고 그렇게 다시 일어서자”(용회마을 구미현 편 「세상일에 관심 끊고 무심히 살 수는 없습니다」 / 기록 박희정)

6월 11일 밀양 송전탑 공사 행정대집행 이후 밀양의 사람들은 〈밀양 송전탑 시즌2〉를 시작했다. ‘당신들의 진지였던 움막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내동댕이쳐지면 “그때 우리는 죽을 것”이라던’ 할매들과 끝까지 손을 놓지 않기 위함이다. 그 작업 안에 기록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팀에서는 밀양 송전탑 투쟁 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투쟁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밀양에서부터 시작된 기록 작업은 다른 싸움의 현장에도 전해지고 있다.

경상북도 청도군 삼평리에도 밀양과 마찬가지로 6년째 송전탑 공사 반대 싸움을 하고 있는 할매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송전탑과 싸우고 있는 이 할매들의 삶에 대한 기록도 책으로 엮여 나왔다. 『삼평리에 평화를-송전탑과 맞짱뜨는 할매들 이야기』이 그 결과물이다.

베껴 쓴 것도 아니고, 같은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같은 할매들도 아닌데, 『밀양을 살다』와 『삼평리에 평화를』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삼평리의 할매들 역시 밀양의 할매들과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책을 만든 이들도 같은 취지로 할매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시간이 흐르더라도 기억되어야 할 보편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삼평리의 투쟁과 주민들의 삶, 특히 할매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삼평리에 평화를』 서문 중에서, 천용길)

“국가가 폭력을 쓰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노. 누구한테 가
 가 말하겠노.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살 데가 없다.
 정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가 돼야 해. 우리는 정치는 모르
 지만 뭐 다 바뀌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정치하는 사람이 누가
 나온들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공사 전에는 이런 생각해본 적
 없지. 얼마나 순진했으면 첨에는 경찰한테 하소연했어요. 경찰은
 정말 이런 잘못된 거를 해결해주는 줄 알고 하소연 많이 했지.
 자기들도 의무로 나오지만 생각만이라도 잘못된 걸 알고 힘없는
 사람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할 줄 알았지. 또 이거 반대를 하면서
 원자력이랑 탈핵을 알았어. 내가 아는 것은 간단하게 원자력 개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 확률이 높을 거다는 거고. 후쿠
 시마나 체르노빌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저거는 안 해야 되
 는 거다 싶어. 한국 사람도 후쿠시마 당시에 소금을 많이 준비했
 잤아. 바닷물이 오염되면 소금도 오염된다고 소금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이 할매들이.”(『삼평리에 평화를』 김춘화(성곡덕)
 편 「우리 재산 뺏들어 갈라 카는 한전이 도둑이지 뭐고」)

며칠 전 나는 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에 다녀왔다. 하루 동안에도
 몇 번의 싸움이 있었다. 경찰의 방패막에 할매 한명은 구급차에 실려갔
 고, 다른 할매들의 몸에는 퍼런 멍과 붉은 상처가 생겼다. 연대자 두명
 은 연행되었다. 싸움이 벌어지는 그 때 길바닥에 널부러진 할매가 말씀
 하셨다. “피땀 저 가서 할매들 맞는 거 사진으로 찍어놔라. 기록으로 남
 겨놔라.” 사진 한 장을 찍을 줄 몰라, 글 한줄을 쓸 줄 몰라 이 억울하고
 원통한 싸움을 밖으로 알리지 못한 할매들의 설움이 순간순간 이렇게
 배어 나왔다.

밀양과 청도의 할매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는 것을 몹시
 기뻐하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송전탑 전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었다.

이 전쟁은 당사자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함께 해야 할 일들이다. 이 기록이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기억이 되고, 우리를 구성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과 기록의 공유가 필요하다. 할매들의 삶이 기록을 넘어서 이 사회가 되고, 역사가 되게 하는 작업들이 이제 그 기억을 공유하게 된 우리에게 남겨졌다.